

만남

2022년 11월
통권 21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2022년 10월 1일 브레멘 공동체>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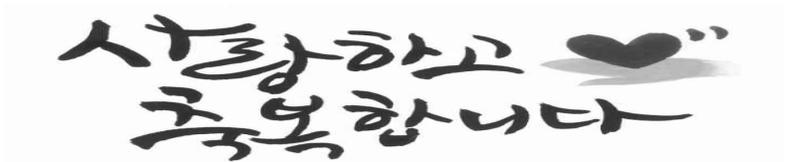
<http://mannam.cathms.kr>

특 쓰는 영성	-----	3
내리신앙 깊어가는 믿음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	6
교리 특특	-----	9
영성 심리	-----	13
성경 속의 사람들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 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고통 받는 어린이들

고통 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시다.



✦ 자기 앞날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자기 앞날을 알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칠순 잔치를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상에는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 보세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번에는 팔순 잔치를 상상해 보세요. 내 주위가 어떤 모습인가요? 호흡을 고르고 구순 잔치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상 속의 자신이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의 무의식에 물음을 던지면 무의식은 지금의 상태를 근거로 해서 앞날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지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날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은 나 혼자만 보여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이 자매님과 똑같은 인생길을 간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대답이 각기 다릅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낮게 살았으면 한다”는 분, 심지어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펄쩍 뛰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미워할 경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과거는 추억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되며 지금은 살맛 납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웃는 훈련입니다. 많이 자주 웃을수록 복이 들어오고 건강이 찾아오고 앞날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웃음주기표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웃는 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는 날
 주일은 주구장창 웃는 날



매일 실행하시고 건강과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아이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조재연 비오 신부님)

“신부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고, 소리 내어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해요. 얼마 전 미루고 미루던 6살 딸아이의 유아세례가 있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매일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의 작은 친구, 안젤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젤라는 제가 사목했던 한 본당에서 만난 2살짜리 친구입니다. 본당에 머물렀던 5년 동안 엄마와 함께 교중미사에 참여하는 안젤라를 보는 것은 본당신부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성가 소리 사이로 음률도 없이 열창하던 안젤라의 어설픈 성가 소리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찬미였고, 부모의 초대로 기도손을 하고 제대를 응시하는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씩씩하게 성전을 향하던 안젤라가 엄마의 등에 업혀 성당에 왔습니다. 안젤라 엄마는 “신부님, 안젤라가 아파요. 기도해주세요”하고 기도를 청해왔고 저는 안젤라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머리를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엄마에게 업혀있던 안젤라는 십자 모양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영성체 때 축복을 받던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친구 하느님과 말을 주고받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이 어떠한 공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기도에도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하느님께 말을 건네면 하느님은 당신의 신비로운 언어, 즉 마음의 언어로 응답해주십니다.

안젤라는 기도가 대화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례 안에서 목소리를 내어 성가를 부르며, 제대와 십자가를 응시하며, 그리고 경건히 두 손을 모으는 것으로 안젤라는 하느님과 즐겨 만나고 있었습니다. 안젤라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안젤라가 이렇게 즐겨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직접 보여준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주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미사 안에서 안젤라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찬미하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안젤라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청하는 엄마의 기도를 통해 당신께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요.

이레네오 성인은 ‘하느님께서서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완전 그 자체’이신 하느님에게는 인간이 바치는 기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보탬이 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기도라는 당신과의 소통 통로를 열어두어 세상에서 부서지고 깨져 상처받은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너무 경건한 자세나 정제된 언어를 요구하거나 엄격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엄격한 태도는 자칫 하느님을 어렵고 두려운 분으로 만들 수 있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이의 마음이 편한 그대로 기쁘게 바치게 하고, 예의는 천천히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또는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아침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저녁 시간이 가족이 함께 기도드리기에는 좋습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자녀가 일상의 언어 그대로 하느님께 말을 건넬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단, 좋은 습관은 덕이 되듯이 루틴한 습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자전거를 배울 때 스스로 페달을 밟아 나가기까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듯, 기도도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는 점차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느님의 음성임을 알아채고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왔던 그의 스승 엘리처럼 부모 또한 자녀가 하느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사무엘상 3,9)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4-32)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푼 것”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13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 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인 순간이나 성경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마약, 도박...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잊게 하고, 인생이 낭비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우리를 취하게 하고, 깊이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그렇게 중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종말을 대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정신과 온 몸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마니아’라는 말도 사실 위험한 말입니다. 뭔가에 ‘미친 것처럼 빠져 있다’는 것도 정도껏 할 일입니다.

그게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해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외에는 ‘미친 것처럼 빠져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 송영진 모세 신부님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장 “이 크신 모든 은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위령성월 특집] 위령성월과 대사

1.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한국 교회는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쳤는데 이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령의 날 All Soul's Day 11월 2일. 모든 성인의 날의 이튿날로서,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기억한다.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11월 3일에 지낸다.) 998년 일년에 한번씩 위령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 클뤼니수도원의 오딜로의 영향으로 보편화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이날 3번의 미사를 바칠 수 있도록 허가되었는데, 이러한 특권은 위령의 날과 성탄절에만 부여되었다.

2. 위령성월이란?

성월이란 전례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복돋기 위해서 정해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신심 기간을 말한다. 특히 정해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성월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 위령성월이다.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고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11월 한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옛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또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에 있게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Purgatorium)에 대한 교리>이다(DS 838). 이후 교회는 연옥의 존재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DS 856, 1304, 1580, 1820). 거룩하게 살다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화해의 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Peccatum)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뤄야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에는 영혼들이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영혼을 기도와 자선행위와 미사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DS 856, 1304, 1743, 1753, 1820, 1867). 따라서 위령성월이 연옥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세 이후 대사(Indulgentia)에 대한 오용이 심해지면서, 연옥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와 자선행위들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를 얻기 위한 여러 기도와 신심행위들이 위령성월에 많이 행해졌다. 위령성월에 바치는 기도는 위령기도로 자주 사용되는 시편 129편과 위령 미사 기도문 중에서 발췌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대사

이렇게 11월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한 달이 되었다. 교황들은 ‘위령의 날’이 들어있는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자들은 위령 성월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한편, 자비와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고자 힘쓴다.



* 위령성월 기도문 *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노망과 노숙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같은 80대분들인데 늙은이, 노인,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이 몇 세부터일까요? 성인기의 삶의 양태는 인습적인 삶, 창조적인 삶, 평범한 삶 등이 있다. 내가 노인이나, 아니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여자는 신체적으로 3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25세 이전에는 화장을 안 해도 된다. 화장이 노화를 가리기 위해 시작하지만 신체적 노화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노숙해진다는 것과 노망이 든다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노숙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심성이 편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 즉 성숙(mature)하다는 것이다.

노화현상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노망이란 미성숙한 것(immature)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더니 자기밖에 모르고 주위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부르는 것이 다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물으러오면 그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나이 먹으면서 어르신대접을 받으려면 창조적 삶을 살아야 된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 나이에 뭘 하겠어, 한다. 그러면 저 노인네하고는 일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노인들은 어디를 가도 있는 둥, 없는 둥,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이다.

인습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튀는 사람들이다. 내가 꼭 반장을 해야 된대거나 내가 뭘가 해야 돼, 세상을 살려면 내가 꼭 출세를 해야 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앞에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욕을 먹는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나이를 먹어도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하는 분들은 어르신 대접을 받는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다.

인간의 노화과정을 그냥 수용한다. 노화과정에서 얻는 것이 지혜이다. 젊었을 때는 편협적인 판단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경험으로 상황에 대해 통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보는 눈이 넓어진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내 나이에 공부하기 늦었다, 너희들이나 잘 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존경스런 마음이 안 생긴다. 남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사느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기 일을 찾아하는 사람은 주위사람들을 편하게 한다.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뭔가 시작하십시오. 재미있는 일을 하나씩 꼭 하시는 것이 좋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7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인도의 근대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소설가 박완서 씨도 40대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나이 들어도 시작해야 한다.

주부들의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아이들이 집을 다 떠난 후에 의존적인 주부들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운다. 이것이 우울증(depression)으로 간다. 빈 둥지 증후군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조로현상이 나타난다.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면 시간이 많아진다. 지금부터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나머지 시간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엇인가 하십시오. 내 힘에 맞는 무엇인가를 해야 젊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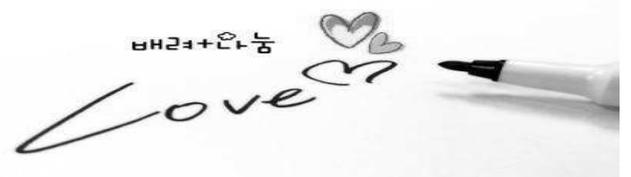
나이가 들면 마음의 벽이 자꾸만 생긴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욕구대로 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 예민하게 되어, 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산다.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들을 가져보는 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다윗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그는 불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1사무 16,12)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16,18) 이사이의 여덟 아들
 중 막내(16,10-11; 17,12-14), ‘양을 치다가 이끌려 나와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시편 78,11)을 맡게 된 이, 그 이름처럼 하느님과 사람들의
 ‘사랑받는 이’, 다윗, 위대한 임금을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골리앗을 처
 이긴 사건’(1사무 17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투사 하나가 나옵니다.
 ‘키는 여섯 암마 이상(약 3m)이고 오천 세켈(57kg정도)이나 나가는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창날만도 육백 세켈(7kg 정도) 되는 거대한 창을
 든’(4-7절) 이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11절)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24절).

이 싸움판에 어린 다윗이 들어섭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군사들에게 그가 묻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26절)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전열’, 곧 하느님께 속한 군대로
 묘사하는 이 말이 온 진영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어린 소년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는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고,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33절)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우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소년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 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 저를 빼내 주실
 것입니다.”(37절)



그런데 우스꽝스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투구와 갑옷, 칼이 주어집니다. 소년 다윗은 ‘제대로 걸지도 못 합니다.’(39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른, 그것도 사울이라는 거대한 사람의 장비들을 걸치고 있는 모습은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막대기와 돌, 그리고 팔매질을 할 끈’(40절)만 들고 적장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앞에 선 다윗은 모두가 들으라고 외칩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45-47절) 그리고 ‘날쌔게 달려가 팔매질을 해서 돌 하나를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고, 이 거대한 장수는 쓰러집니다.’(48-49절) 필리스티아인들은 달아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42절) 이 소년을 과감하게 뛰어나가 모두가 ‘무서워 떠는’(11절.24절) 골리앗에게 도전하게 한 이 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믿음’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나를 저 자의 손에서 빼내 주실 것이다.’(37절)라는 굳센 믿음을 심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논리적인 신학적 증명도, 놀라운 신비체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양을 물어 가면 저는 뒤쫓아 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내고,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잡아 휘어잡고 내리쳤습니다.’(34-36절)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일, 바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근원이며, 용기의 원천입니다.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없지만, ‘체험에서 오는 믿음’, 몸으로 겪으며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의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성의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구호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로 바꾼 소리에 어느새 끌려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깊이 있는 신앙처럼 생각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신비체험만을 강조합니다. 동영상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전화기와 인터넷을 통해 떠돌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나 지식도 동영상도 메시지도, 그냥 호기심을 채워줄 뿐이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서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얻은 ‘주님의 손길에 대한 체험’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만남, 별다른 것 없는 시간들과 늘 지나고 머무는 곳에서 겪는 일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들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의 신앙’이며,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힘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러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빗대어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약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험의 믿음으로 무장한 이’로서 ‘문명의 무기로 무장한 이’를 물리친 ‘힘센 장사이며 전사’(1사무 16,18)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김점선 권우애 최효진	17일	엘리사벳	허영란 오세숙 박가람 김에리자
5일	엘리사벳	송옥자 한경자 김경미 (이사벨)	22일	체칠리아	김애란 이영희 이석희 신지혜 김효숙
10일	레오	최장용 김현일 허주연 추진구	30일	안드레아	김영경 권지연
17일	빅토리아	김귀숙 구자옥		안드레아	김삼용 김성곤 허길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22일	체칠리아 (마리 세실)	조영실(B)
16일	젤트루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17일	엘리사벳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11월 성가번호 ❖

11월	입당	봉헌	성체	파견
2일	37	221	151	227
6일	21	216	498	232
13일	44	511	181	68
20일	75	220	175	73
27일	96	212	167	91

❖ 11월 전례 봉사 ❖

11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2일 (위령)	정정숙(아나벨) 최영숙(데레사)	위령의 날 (올스도르프 묘지)	*	*
6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김영희(클라우디아)	*	3구역
13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세실리아)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	4구역
20일	청년회	청년회	*	요셉 마리아
27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한말조(마리안나) 이순자(마리아)	*	청년회

♥ 10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0월 23일 기준)

강신행, 권지연, 강순행, 김민옥, 김경미, 영희 Eggerstedt, 손모니카, 심동근, 우동천,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최장용, 최순남

❁ 계좌입금(10월 20일 기준)

강일남, 김동수, 김부남, 김대현, 김수희, 김유석, 김원자, 김진호, 김치수, 남궁춘배, 배성우, 박정은, 백정선, 송문규, 육종인, 이서석, 이명원, 이공중, 이영원, 이성원, 이석우, 이경규, 정정숙, 최종금, 최성자, 허길조, 허두욱, 허채열, 허선애, 현영애, 춘옥 Zerbock, Alice Eilinghof, 옥수 Renitzsch, Caroline Tunas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0월 20일 자 경상비 잔액은 22.935,79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 2일 수요일은 위령의 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10시에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미사 후 선종하신 교우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무덤축복과 함께 연령회에서 준비한 꽃과 촛불을 봉헌합니다. 미사장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혹시 다른 묘원에서 무덤축복을 원하시면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1월 20일 주일은 Diasporasonntag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Diaspora라는 말은 유배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독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Diasporasonntag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11월 26일 토요일에는 대림바자회가 예수 성심 성당에서 열립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펠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부회장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재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한솔나(리드비나)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 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현유건(레오나르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1 월 행사 표 (위령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화	모든 성인 대축일		
2	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위령의 날 미사, 10시	Ohlsdorf Friedhof
3	목			
4	금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7	월			
8	화		꾸리아	
9	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0	목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11	금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12	토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3	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청년회 기도 모임	
14	월			
15	화			
16	수			
17	목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small>성서주간</small>	Diasporasonntag 2차 헌금	
21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22	화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23	수			
24	목	성 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5	금			
26	토		대림 바자회	
27	일	대림 제1주일	사목회	
28	월			
29	화			
30	수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보 만남 ❖

편 집 인 이재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